



# 조선인 징용피해 규명... '미발표 마지막 장' 발굴

마쓰다 도키코의 '땅밑의 사람들' 종장 日 현지  
김정훈 교수 "가해 역사 성찰·직사... 심경 담겨"

조선인·중국인 징용 피해의 진상 규명에 평생을 바친 일본 작가 마쓰다 도키코(1905~2004)의 대표작 '땅밑의 사람들'의 미발표 종장 원고와 일본 현지에서 발굴된 화제다. 이 소식은 '마쓰다 도키코 회'가 새로운 체제를 갖춰 재출판하면서 발행한 '마쓰다 도키코 뉴스' 제1호(회보)에 발굴 경위와 구체적 내용이 상세히 소개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내용을 예자키 준 마쓰다 도키코 대표가 최근 김정훈 교수(전남과학대)에게 직접 보내오면서, 종장 발굴 소식이 국내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 종장 발굴의 직접적인 계기는 오쿠무라 하나코 아미가타대학교 특임 연구원의 집요한 자료 조사였다. 오쿠무라 연구원은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열린 마쓰

다 도키코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일본 명의 유일한 청취자로, 문병관 시인 묘지 참배에도 동참했다. 그녀는 광주 심포지엄 참가 후 아카타현립도서관과 마쓰다 도키코 문학 기념실을 꾸준히 방문하며 자료를 탐색해 오다가 기념실에서 마침내 '땅밑의 사람들' 종장 원고를 발견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촬영 복사본을 예자키 준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쿠무라 연구원이 확인한 원고는 본문 45매와 창작 메모 등이다. 원고 표지에는 '땅밑의 사람들 종장'이라 적혀 있으며, 1951년 7월 1일 하나코가 광산회생자 중국인 416위 위령제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또 기존 작품이 1945년 7월 1일 봉기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확실당하는 장면에서 끝나는 것과 달리 종장은 그로부터 6년 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희생자 추도와 전쟁 책임 문제를 더욱 분명한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땅밑의 사람들'(범우사)을 2011년 번역해 국내에 소개한 이는 김정훈 교수. 김 교수는 마쓰다 도키코 장녀를 비롯해 일본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일본 동북 지방 사투리로 집필된 소설 문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번역해 바 있다. 이후 한·일을 왕래하며 15주년 기념 강연회에 초청받아 강연하고, 5년마다 열린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하며 관련 번역서와 평론집을 출간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 왔다. 이번에 확인된 원고는 작품 본문 45매

와 창작 메모 등 자료 30매, 합계 75매로 구성돼 있다. 1951년 처음으로 '인민문학' 발표 당시에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원고가 '종장'이자 '제3부'로 표기돼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땅밑의 사람들'은 하나코가 사건을 배경으로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들의 징용 피해와 저항, 그리고 민중 간 연대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리얼리즘 소설이다. 일본제국주의 지배 아래 동아시아 노동자들의 현실과 그 속에서 썩은 연대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동안 작가 마쓰다는 조선인·중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새긴 작품에서 다수의 중국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폭압적 장면을 소설 마지막 장면으로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굴로 6년이 지난 1951년 희생자들의 위령제 장면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비극적 사건의 기록을 넘어 추모와 성찰의

서사로 작품을 완결짓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새로 발굴된 관련 자료에는 마쓰다 작가 이외 3자의 것도 있으나, 창작 메모의 필적은 마쓰다 본인의 것이 확인됐다. 종장이 왜 생전에 발표되지 않았는지,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김정훈 교수는 "'땅밑의 사람들'은 작가가 제국주의 가해의 역사를 양심적으로 성찰하고 직시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며 "이번 종장 발굴은 완결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으로, 이국 노동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마쓰다 도키코의 심경이 담겨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향후 원고의 정밀 분석과 학술 보완 작업을 통해 작품을 재평가하고 국내외에 소개할 계획이다. 5·18 광주에서 썩은 한일 학술 교류가 동아시아 지역과 연대의 문제를 다시 조명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문화예술 새로운 직군 '한눈에'... ACC 융복합 인재양성

산학협력과정 17일 전남대  
26일부터 조선대에서 진행

실무 중심·개인 맞춤 피드백  
내달 일반인 장·단기 과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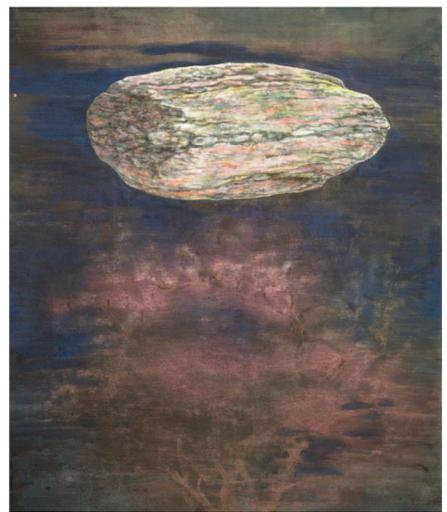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진로 선택을 돕는 'ACC 직군탐색과정'을 운영해 미래 문화인재 양성에 나선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콘텐츠 기획자, 데이터 디자이너,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등 새로운 직군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진로 선택을 돕는 'ACC 직군탐색과정'을 운영해 미래 문화인재 양성에 나선다. ACC 직군탐색과정은 ACC가 한국고용정보원과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동 개발해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직군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력과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장기과정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먼저 'ACC 직군탐색 산학협력과정'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전남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조선대에서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학기 과정은 전남대 문화전문

대학원의 교양과목 '문화예술 경영 탐색'과 연계해 진행된다. 첫 강연은 17일 전남대 진리관에서 열리며, 김중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문화예술 분야 직업세계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어 5월까지 융복합문화기획자(김윤영 명지대 객원교수),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김상미 ㈜블루버드 세 대표), 국가유산교육사(박지영 문화터하기연구소 대표), AI콘텐츠크리에이터(김태성 ㈜MBC플러스 제작센터장) 등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특강 총 5회가 운영된다. 조선대 본관에서 진행되는 산학협력과정은 글로벌 인문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양과목인 '문화산업업 job다'와 '프랑스·유럽 뮤지컬과 AI'를 통해 이뤄진다. 오는 26일 '국가유산교육사'를 주제로 한 현장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사운드디자이너

(김병현 사운드테일 대표), 데이터사각 디자이너(이진숙 숙명여대 교수), 음악 산업전문가(이준상 ㈜질리뮤직 대표), 디지털헤리티지전문가(박진호 고려대 연구교수), 각색작가(손상민 ㈜김영사 디지털콘텐츠 기획위원) 등 6개 분야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ACC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ACC 직군탐색과정'도 운영한다. 교육은 직군별 단기과정으로, 오는 4~12월까지 단기 및 장기과정으로 나눠 준비된다. 'ACC 직군탐색 단기과정' 교육은 문화콘텐츠 신작진 전문가 강연으로 스페클레터티비디자이너(셀린박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공공디자이너(채민규 국민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직군의 트렌드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며 총 9개 직업 전반을 살펴볼 예정

이다. 문화예술 분야 실무 중심 과정으로 진행되는 'ACC 직군탐색 장기과정'은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생생한 직무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직군 이해를 높이며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강의는 사운드디자이너(6~7월), 사운드엔지니어(7~8월) 과정으로 각 6회씩 진행된다. 이번 강좌에는 김병현 사운드테일 대표, 김현주 GS아트센터 음향감독이 참여한다. ACC 직군탐색 단기 및 장기과정은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모집한다. 단기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20명 모집한다. 장기과정은 유료로 진행되며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15명씩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행성-복사꽃 피는 밤'(2025)

## 돌의 흔적 통해 현시대 존재 가치 일깨워

이명숙 초대전 내달 17일까지 우재길미술관

우재길미술관(관장 김치순)은 동양화에 새 사물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로 조명을 받은 이명숙 작가 초대전을 16일 개막, 오는 4월 17일까지 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STONE TRACE'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출품작은 동양화 20여점. 돌의 흔적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깨울 수 있도록 구성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저마다 다른 형태를 가진 돌을 가리켜 별자 행성, 하나의 소유주임을 제시한다.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돌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떠한 역경 속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움으로써 관람객들과의 교감을 추구한다. 그의 작업은 섬유에 염색을 하고 장지에 배접하면서 그 위에 황토와 백토, 분체에 석채를 혼합해 이뤄진다. 마치 돌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소망을 담듯이, 작기도 그러한 마음으로 작업하면서 큰 울림을 던져준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돌의 흔적에서는 돌뿐만 아니라 나비와 꽃, 식물과 동물을 그려면서 돌의 가치성을 다시 생각나게 해준다. 나비에 있어서 돌은 마치 기대어 쉬고 싶은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

나의 빛이라는 감성적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 김치순 관장은 "이명숙 작가의 문인화 는 한 가지의 사물에 몰입하고 집중해 담백하고 간결하게 묘사해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사의화(寫意畵)로, 현대 회화의 특징 중 하나인 미니멀리즘(Minimalism)과도 일맥상통한다"며, "대상에서 깊어 들어가 이해하고 대화하듯 표현된 작가의 작품을 보며 우리 내면을 들여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박경식 우재길미술관 부관장은 "이명숙의 회화를 통해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온갖 고난과 시련 속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빛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명숙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공예과와 동 대학원 동양화 전공 졸업, 코트라 오픈 갤러리와 레드부츠갤러리 및 금보성아트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 등 다수 국내외 단체전에 출품했다. 강남대와 상지대에 출강했으며 서울시립대(평생교육원) 체재 공필화와 수목화 전담교수를 맡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자본주의 사회 노동·저항 스크린에 투영

다큐 감독 흥진환 특별전 18~31일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관이 다큐멘터리 감독 흥진환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한다. 자본주의 사회 속 노동의 가치와 저항의 의미를 꾸준히 탐구해 온 감독의 장·단편 작품을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는 자리다. 광주독립영화관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흥진환 특별전'을 갖고 신작 다큐멘터리 '오, 발렌타인'을 비롯해 '엔다큐멘터리 모나리자', '합창', '멜팅 아이스크림' 등 총 4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특별전의 문을 여는 작품은 흥진환 감독의 신작 '오, 발렌타인'(2026)이다. 영

화는 2004년 2월 14일 세상을 떠난 하청노동자 박일수의 죽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는 노동과 예술, 그리고 저항의 의미를 되짚는다. 작품은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현재의 삶을 시와 노래, 영상과 사운드로 교차시키며 패배한 혁명 이후의 시간을 사유한다. 개막일인 18일 상영 이후 오후 7시에는 흥진환 감독과 신은실 영화평론가가 참여하는 시네토크가 열린다. 두 사람은 작품의 창작 과정과 문제의식,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회와 만나는 방식에 대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엔다큐멘터리 모나리자'(2025)는 미국 대공황 시기 빈곤의 상징으로 알려진 이주 여성의 사진을 출발점으로 역사적 이미지와 사건 사이의 간극을 탐구한다. 1930년대 미국 농업안정국(FSA) 사진

프로젝트 기록과 한국의 재개발 반대 투쟁, 이주노동자 투쟁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재구성해 사진과 사건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한편 '합창'(2025)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현대 노동 투쟁의 기록을 교차시키며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탐구하는 실험적 다큐멘터리이다. 해당 작품은 18일 상영된다. '멜팅 아이스크림'(2021)은 민주화운동 관련 필름 복원 과정을 따라가며 역사 기록의 공백과 삭제된 기억을 되짚는다. 민주화운동의 기록 뒤편에서 지워진 노동자의 현실을 비추며 오늘의 사회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상영 시간표와 예매는 광주독립영화관 누리집과 예매 플랫폼 '무비'에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